

미래 디자인 제시...기업·학계·시민 결집 관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30
4차 산업혁명 진화된 디자인
30개국 참여...참가 기업 증가
투자자 초청·학술행사 다채



2017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국제화, 대중화, 산업화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라는 단론에 따라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콘텐츠 차별화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디자인 비전' 등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디자인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산학연과 시민이 역량을 결집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미래(FUTURES)'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8일부터 46일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4개 본전시를 비롯해 특별전(3개), 특별프로젝트, 국제학술행사, 디자인비즈니스, 디자인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서울과학기술대 김상규 교수를 비롯 17명의 큐레이터들이 분야별 전시, 학술행사, 비즈니스라운지 등을 기획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디자이너 370여명이 참여하고, 국내외 기업의 1100여 종의 아이템이 선보인다. 이는 지난 2015년 제6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20개국 358여 디자이너·기업 참여 600여 작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RCA, 미국 산호세주립대학, 이탈리아 밀라노공과대학, 고려

대, SADI, 코리아디자인멤버십 등 국내외 대학 15개팀 100여명의 청년 디자이너들이 미래디자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기아·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국내 및 해외의 크고 작은 기업의 참여 규모도 300여 개에 이른다. 이번에는 행사 장소도 대폭 확대했다. 메인 전시장인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 시립미술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신세계백화점, 조선대학교 등으로 다변화해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메인 전시로 꼽히는 본전시2는 '미래를 디자인하자(Design! the Future)'는 모토에 따라 AI, Iot, 로봇,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인간에게 맞는 가치로 진화·변화하는 디자인의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주요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현실감 있는 미래 생활과 산업을 디자인을 매개로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비엔날레전시관 4전시관에서는 '미래를 창업하자(Startups in the Future)'라는 테마로 미래형 창업의 비전을 제시한

다. 역량있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과 투자자를 매칭, 도약과 성장이 연계되는 '벤처투자경진대회'로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비엔날레전시관 5관에서는 우수 디자인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디자인마켓'과 지역의 전통 공예기술과 문화에 솔직 감성, 디자인이 어우러진 핸드메이드 상품 전시판매전도 함께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5~6관)에서는 9월 8일부터 24일까지 '비즈니스라운지'가 열린다. 아트콜라보 제품 전시, 지역 우수제품 전시 등 디자인 전시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데이'도 진행된다. 도슨트 요원 교육과 SNS 홍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 선발된 도슨트 요원 17명은 심화교육에 비지땀을 쏟고 있으며 지난 4일 발대식을 가진 디자인비엔날레 블로그기자단(23명)은 SNS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gdc.or.kr)는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 중문으로 개편해 외국인 접근성을 높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3년 전쯤의 일이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후배 S는 7년만의 만남에서 "기회만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10년 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파리로 유학을 떠난 그녀의 고백은 순간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아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예술의 도시를 떠나고 싶다니. 게다가 당시 그녀는 프랑스 남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놀라움은 더 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자연인즉슨,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물가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은 바람에 정착 남세자들이 사용할 시설은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도시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 서 치솟은 임대료와 물가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일 관광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당국에 관광객 수 통제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추세다. 최근 관광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여수도 마찬가지. 잘 알다시피 여수는 엑스포 개최 효과와 KTX

관광도시의 '불편한 진실'

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파리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어딜 가나 관광객들로 붐비는 번잡한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1년 365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공공장소건, 문화시설이건 줄서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소음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관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뜬한 추운 겨울에나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이런 불만이 그녀의 유별난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근래 세계 주요 관광도시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으면서 현지 주민들의 '반(反) 관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극좌정당 '민중연합 후보당'(CUP)의 청년조직은 지난 1일 공공 자전거 거처대에 세워놓은 관광객용 자전거를 파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게시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 자전거 거처대를 관광객들이 차지하

게용으로 2015·2016년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시민협이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시민 395명을 대상으로 '관광객 증가가 여수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증가는 미미한데 반해 물가상승과 교통정체, 소음, 쓰레기, 불법주차로 불편이 가중된 탓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은 아예 타지역으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전국 지자체의 화두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다. 하지만, 일부에선 관광객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들의 정주환경에는 소홀한 탓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준비 없는' 관광도시를 자칫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일이다. 근래 관광객 유치에 팔 걷고 나선 문화관광주러면 더더욱.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이웃과 문화 배우는 재미

'여수 문화파출소'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1일부터 '문화파출소-여수' 하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문화파출소인 '문화파출소-여수'는 지난 1월 여수시 학동 안산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개소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0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31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총 14개의 프로그램 추진된다. 프로그램은 매월 다르게 운영되며 참가자는 매월 넷째 주(월~목요일)마다 모집한다. 8월 교육프로그램은 '프랑스 자수 기초-다용도 손수건',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림자극을 만들어보는 '빛놀이 학교', 동네 홍보곡을 만들어 연주하는 '동네밴드 프로젝트-나도 남만버스카'가 운영된다. 9월에는 '마술기초-Easy Magic', '요리놀이학교', '동네 밴드 프로젝트-문화파출소 감성밴드 만들기', 10월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휴먼이학교-토닥토닥 오감놀이', '동네그림 프로젝트-엽서에 그리는 수채화', 11월에는 '차량용 석고방향제 만들기', '그리기 놀이학교', '동네 인문 프로젝트-치유의 글쓰기'가 운영된다. 또 매월 마지막주 중추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미술·공예작품을 만드는 '뚜덕뚜덕 파출소'가 운영되며, 10월에는 '문화파출소 반상회'를 열어 작품을 전시하고 아트마켓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jact.or.kr) 문화파출소 관련 공지사항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921-565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천주교의 역사 바티칸 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십자가(왼쪽부터), 안중근의 유묵, 회화 성모자상(장우성 1작).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연합뉴스>

한국 천주교 230년 역사 '바티칸 첫 특별전'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다음 달 9일부터 '가톨릭의 심장' 바티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을 주제로 바티칸 박물관에서 두 달간 진행된다. 바티칸에서 한국 관련 특별전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한국 천주교회가 겪은 순교의 역사와 사회 참여적 면모를 집대성했다. 교회사를 넘어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와 주 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원하고, 서울역사박물관이 공동주관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전시 유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 '경천(敬天)이다. '경천'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듬해인 1910년 3월 위순 형무소에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일본인의 부탁을 받아 쓴 붓글씨다. 아울러 '기해병오 치명 증언록'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일어난 병오 박해(丙午·1846년) 등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순교자 16인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다산(柴山) 정약용이 균정의 문란을 비판한 시 '애절양'이 수록된 '목민심서'와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십자가도 전시된다.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은 조선의 첫 순교자인 윤지충(1759~1791)의 고종사촌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BK21플러스, 대만 석학 초청 학술교류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하는 등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와의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대 BK21플러스사업단은 최근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의 박병선 교수를 초청, '대만, 대만인 그리고 대만의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제

14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박병선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대만에서 일고 있는 한류 및 한국어 문학 교육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과 대만 간의 문화적·학술적 교류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